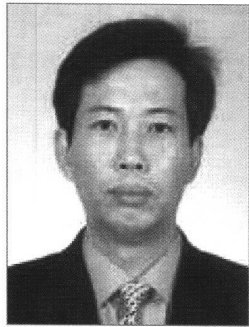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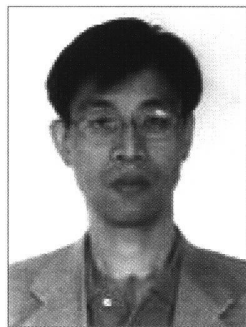
5월, 봄 날의 따스함과 청명함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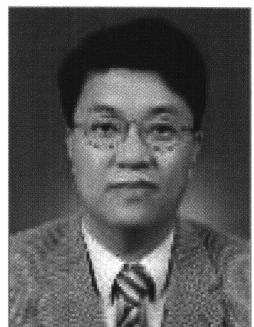
송 동 범 우리회 부회장
(주)일구조 대표이사



채 흥 석 사무소협의회 위원장
(주)세진에스씨엠 대표이사



황 기 수 사무소협의회 이사
(주)건양구조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이 호 찬 사무소협의회 이사
(주)MCS구조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김 승 환 사무소협의회 이사
(주)원우구조기술사사무소 소장



이 성 군 사무소협의회 이사
네오 E&I 설계사무소 소장



임 철 우 사무소협의회 이사
(주)아이스트리엔지니어링 대표

구조설계사무소가 겪는 어려움은 새롭게 논의 될 부분도 아니며, 이야기하는 것이 식상 할 만큼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미없는 소재입니다. 인력수급의 어려움에서부터 비상식적인 사업 환경까지, 이러한 어려움은 짧지 않은 시간 지속되어 고질병이라고 해도 과장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가의 용역대가, 불평등한 업무관행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관련제도의 미비점은 시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설계 시장은 기본 바탕부터가 흐려져 있어, 한층 두터운 우리의 노력만이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조설계사무소의 미래가 찾는 것에, 기다리는 것에 없다면 만들어 가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사무소협의회는 구조기술사사무소가 구조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2012년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국내의 회원사 현황을 살펴보면 법인이 196개, 개인이 109개로 전체 305개 사무소가 있으며, 소속된 기술사만 489명입니다. 전체 회원이 900여명이라고 하니 50%정도가 회원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평균 10명은 되므로 어림잡아 약 3,000 여명이 됩니다.

사무소협의회는 구조사무소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원사간의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회원사의 정보를 공유하여 심의 등에 상호협력하고 저가입찰 등을 사전에 방지도록 홍보 할 예정입니다.

둘째, 업무환경개선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업무에 중복/공통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DB화하여 회원사에 제공 할 것이며, 연구소 설치 등 기업가치 향상 방안을 준비하여 전달 할 것입니다.

셋째,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신규 업역 개발과 기존 업무확대 방안입니다.

일례로, 해체(철거)공사에 필요한 구조기술사 업무내용을 표준화하고 통일된 대가기준이 포함된 해체(철거)공사 관련용역 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신규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회의 관련 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후 회원사와 공유 할 예정입니다.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해체(철거)공사에 관한 자료나 경험이 부족한 회원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세미나를 준비하여 자료제공 및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가 하는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경험에서 비롯되는 실수를 최소화하고 업무 내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해외구조설계 가이드(안)을 마련하여 회원사의 신규업무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회 인증기술의 활성화를 통하여 회원사와 인증업체가 상호이익이 되도록 방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기존 구조물 성능평가(학교 내진포함) 분야도 신규 업역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할 예정입니다.

당면한 회원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문제인식과 구조기술사회, 회원, 회원사 모두의 노력이 합쳐져야 할 것입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겠지만 회원사 여러분의 공동체라 할 수 있는 사무소협의회가 앞장서려합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잘사는 구조기술사”와 “발전하는 구조기술사사무소”를 위하여 한 발, 한 발, 다져 가겠습니다.